

# 阿難의 나이에 관한 고찰

염중섭(정암)  
동국대학교

## I. 序論

아난은 봉다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동시에 봉다를 25년이나 시종한 봉다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거기마다 특유의 총명함에 의해서 8만 4천의 法藏을 모두 암송하고 있어<sup>1)</sup> 1차 결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up>2)</sup> 또한 이후로도 大迦葉을 이어서 불교의 수장적인

---

1) *Thera-gāthā*(長老偈), 1024: “나는 봉다로부터 8만 2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수행자들로부터 2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8만4천의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十誦律』에는 대가첩이 직접 아난을 청하자고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四分律』·『五分律』·『摩訶僧祇律』에는 결집에 참석한 다른 비구들의 여론에 밀려서 아난을 청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鞞리율』에는 아라한이 된 아난이 자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한 자세한 정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十誦律』卷60, 「五百比丘結集三藏法品第一」(『大正藏』23, 447b); 『四分律』卷54, 「集法毘尼五百人」(『大正藏』22, 966c); 『五分

위치에 오르게 된다. 이는 아난이 봇다보다 먼저 열반에 드는 수제자  
舍利弗<sup>3)</sup>보다도 근본불교에 있어서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난의 폭이 사리불에 비해서 근본  
불교에 있어서 훨씬 큰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불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점을 확보하게 해 줄 수가 있게 된다. 본 고찰은  
아난의 나이에 관한 측면의 접근이다. 아난의 나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경우 우리는 봇다와 아난의 관계와 근본불교 시대  
의 여러 가지 교단사와 관계되는 측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출해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아난의 나이에는 여러 혼란상들이 내재되어 있어 이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고찰에서는 먼저 ‘아난의 출신과 형제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아난의 나이를 ‘사실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으로 분기하여 논의를 개진해 보고자 하였다.

아난에게는 봇다가 성도 후 카필라로 귀향했을 때, 비구로 출가했다는 율장 중심의 기록과 봇다의 성도일에 탄생했다는 불전관련 기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기록간의 나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 고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양하여

---

律』卷30, 「第五分之九五百集法」(『大正藏』22, 190c); 『摩訶僧祇律』卷32, 「明雜跋渠法之十」(『大正藏』22, 492a); 『毘哩율』(Vinaya), Cullavagga, 11五百犍度, 286.

3) 『雜阿含經』卷45, 「一二一二」(『大正藏』2, 330b): “汝今如是。爲我長子。鄰受灌頂而未灌頂。住於儀法。我所應轉法輪。汝亦隨轉”; 『大智度論』卷2, 「初品總說如是我聞釋論第三(卷第二)」(『大正藏』25, 68b): “舍利弗是第二佛。”

아난의 나이에 대한 보다 정합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의 개진 속에서 그러한 주장들의 의미적 타당성에 관해서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II. 출신과 형제관계

### 1. 아난의 종족

아난은 봉다의 종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北傳의 설이다. 그러나 南傳의 『大史』에 의하면 아난과 제바달다가 공히 善覺(Suprabuddha)의 아들로 야소다라(Yasodhara)의 동생이라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sup>4)</sup> 이렇게 될 경우 아난은 봉다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남전을 수용하게 될 경우 우리는 세 가지 문제의 해법 도출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첫째, 아난과 제바달다는 봉다의 성도 후 카필라로 귀향한 시점에 발제와 아나율 등의 석가족 귀족들과 함께 출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는 아난이 석가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석가족 귀족들의 출가에 대해서 『四分律』 권4에는 8인,<sup>5)</sup> 권3에는 7

4) 申星賢, 「提婆의 破僧事 問題」, 『佛敎學報』 제33호(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6), 164쪽; 渡邊照宏, 『新釋尊伝』(東京: もくま學藝文庫, 2005), 410쪽.

5) 『四分律』卷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22, 591a): “時阿那律釋子。跋提釋子。難提釋子。金毘羅釋子。難陀釋子。跋難陀釋子。阿難陀釋子。提婆達釋子”

인,<sup>6)</sup>『빨리율』7破僧犍度에서는 6인<sup>7)</sup>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우바리가 석가족의 하인으로서 이를 귀족들에 앞서 출가하여 상좌가 되고, 釋王이었던 빨제가 우바리에게 뒤에 출가하는 사람으로서의 예를 갖추는 양상이 기록되어 있다.<sup>8)</sup> 이는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대목인데, 전체적으로 석가족과 관련된 측면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우리는 아난이 석가족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아난과 형제관계에 있는 제바달다의 破僧事와 관련하여 율장의 관련기록들을 통해서 아난의 출신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이는 제바달다에 대한 파승사의 기록을 통해서 제바달다의 출신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형제관계에 있는 아난의 출신에 관해서도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한 측면에 의한 것이다.

6)『五分律』卷3,「第一分之二第」(『大正藏』22, 17a·b): “時跋提王。與阿那律阿難難提調達婆婆金憍盧等甚相愛重”

7)『빨리율』, Cullavagga, 7破僧犍度, 182芻: “atha kho bhaddiyo ca sakyarājā anuruddho ca ānando ca bhagu ca kimbilo ca devadatto.”

8) 優波離가 釋迦族들에 비해서 먼저 出家한 것에 관한 내용은『四分律』권4와『五分律』권3에도 등장하지만, 釋迦族의 귀족들이 먼저 出家한 優波離에게 出家 때 예배하는 대목은 후대의『破僧事』나『衆許摩訶帝經』에만 등장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석가족의 귀족들이 우바리에게 예를 표했다는 측면은 出家 때 모든 僧侶들에게 禮拜하는 것은 아니지만, 出家에 의한 夏臘의 序列(座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佛本行集經』권58 등을 통해서도 능히 확인이 가능한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적인 부분이 優波離와 賢王이라는 전혀 상반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인물들을 통해서 후대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징화된 것으로 사료된다.『破僧事』卷9 (『大正藏』24, 146a);『佛說衆許摩訶帝經』卷13 (『大正藏』3, 974c-975a);『佛本行集經』卷58,「婆提剉迦等因緣品中」(『大正藏』3, 923a).

제바달다는 봉다의 만년인 72-73세 무렵<sup>9)</sup> 불교교단의 승계를 요구하게 되는데,<sup>10)</sup> 이러한 과정에서 봉다에 의해서 사리불과 목건련에 비교 당하면서 거부되자, 『出曜經』 권16에는 이때 제바달다가 “봉다는 이제 사리불과 목건련비구만을 찬탄하고, 동생인 (나는) 친대한다.”<sup>11)</sup>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바달다는 자신이 봉다의 계승자가 되어 교단을 승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석가족의 종족 우월론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봉다에게 대등하다는 견해를 피력함에 있어서 종족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沙門瞿曇은 種姓으로 나보다 수승하지 못하다. 그가 瞿曇氏로써 釋迦族에 서 태어났다면 나 또한 구담씨로써 석가족에서 태어났다. …… 봉다께서 이제 승단을 물리치신다면 내가 마땅히 승단을 영도하겠다.<sup>12)</sup>

9) 『善見律』에 阿闍世王이 즉위하고 8년 후에 봉다가 入滅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봉다의 入滅을 보편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80으로 잡고, 阿闍世의 즉위년에 提婆達多의 破僧伽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이때 봉다의 春秋는 73세가 된다. 『善見律毘婆沙』 卷2 (『大正藏』 24, 687a): “爾時阿闍世王。登王位八年佛涅槃。” 장 부아슬리에, 『봉다—끼지 않는 등불』, 이종인 옮김 (서울: 時空社, 2004), 95쪽.

10) 『四分律』 卷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 22, 592b); 『五分律』 卷3, 「第一分之二第」(『大正藏』 22, 18b); 『十誦律』 卷36, 「雜誦第一(調達事上)」(『大正藏』 23, 258b); 『毘哩烏』, Cullavagga, 7破僧犍度, 188-189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卷14, 「破僧違諫學處第十」(『大正藏』 23, 701c); 『鼻奈耶』 卷2 (『大正藏』 24, 860a); 『破僧事』 卷13-14 (『大正藏』 24, 169b-c).

11) 『出曜經』 卷16, 「忿怒品第十五」(『大正藏』 4, 695c): “如來今日讚歎舍利弗目連比丘。而更輕賤小弟”

12) 『十誦律』 卷36, 「雜誦第一(調達事上)」(『大正藏』 23, 257b-258a): “是沙門瞿曇。種姓不勝我。彼姓瞿曇生釋家。我亦姓瞿曇生釋家。…… 佛今捨僧者。我當將導衆僧”

사문구담은 生處와 종성에 있어서 나보다 수승하지 못하다. 그가 釋種이라면 나 역시 석종이니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sup>13)</sup>

그가 釋種瞿曇이라면 나 역시 석종구담이며, 그가 母系가 뛰어나다면 나 역시 모계가 뛰어나며, 그가 석가에서 태어났다면 나 역시 석가에서 태어났으니, 그의 종성은 나와 같아서 수승함이 없다.<sup>14)</sup>

사문구담에게 神足이 있다면 나에게도 역시 신족이 있고, 사문구담에게 아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도 역시 아는 것이 있으며, 사문구담이 훌륭한 종성이라면 나 역시 훌륭한 종성이다. 만약 사문구담이 하나의 신족을 나타낸다면 나는 응당 둘을 나타낼 것이고, 사문이 둘을 나타낸다면 나는 응당 넷을 나타낼 것이며, 그가 8이면 나는 16, 그가 16이면 나는 32를 드러내어 사문이 신변을 드러내는 것을 따라서 나는 마땅히 갑절을 펼쳐 내리라.<sup>15)</sup>

나도 釋種姓의 瞿曇大人이니, (붓다에게) 굽혀 그를 따르지는 않겠다.<sup>16)</sup>

13) 『鼻奈耶』 卷2 (『大正藏』 24, 859b)：“時調達便此沙門瞿曇生處種姓不能勝我。此亦釋種我亦釋種。有何差降”

14) 『鼻奈耶』 卷5, 「僧殘法之三破僧戒」(『大正藏』 24, 869a)：“此亦釋種瞿曇。我亦釋種瞿曇。此亦母族成就。我亦母族成就。此亦生釋家。我亦生釋家。此族姓與我無殊”

15) 『增壹阿含經』 卷47, 「放牛品第四十九今分品-九」(『大正藏』 2, 803a)：“沙門瞿曇有神足。我亦有神足。沙門瞿曇有所知。我亦有所知。沙門瞿曇姓貴。我亦姓貴。若沙門瞿曇現一神足。我當現二。沙門現二。我當現四。彼八我十六。彼十六我三十二。隨其沙門所現變化。我當轉倍”

16) 『十誦律』 卷37, 「雜誦中調達事之二」(『大正藏』 23, 266a)：“作是念。我是釋種姓瞿曇大人。不可屈下從他”

이상의 내용들은 제바달다의 종성이 석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아난 역시 석가족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제바달다가 석가족이라는 측면은 또한 파승사와 관련된 기록들에 등장하는 破僧伽의 핵심동조자 4인인 拘婆離(Kokāliko)·迦留羅提舍(Kaṭamorakatissako)·鳲茶達婆(Khaṇḍadeviyā putto)·三聞達多(Samuddadatto)가 모두 석가족이었다는 기록과도 서로 호응할 수 있는 바라고 하겠다.<sup>17)</sup> 즉, 파승가의 주역들은 공히 석가족이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파승가의 결과로 인하여 무간지옥에 간 제바달다에 대해서 아난은 “諸釋種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가문을 훼손하였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sup>18)</sup> 이는 제바달다가 곧 석가족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아난 역시 석가족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파승사와 관련된 제바달다의 출신 측면은 제바달다가 석가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제바달다와 형제관계에 있는 아난 역시 석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셋째, 불전과 관련된 기록들 중에는 ‘捨術爭婚’의 구조가 설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아난이 아쇼다라의 동생이 아니라는 승단인식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점.

각술쟁혼 구조는 결혼 대상자인 야쇼다라를 놓고 석가족의 귀족들이 서로 기예로 경쟁하여 승리자가 야쇼다라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술쟁혼의 구조가 나타나는 문현 중에서 『佛本行集

17) 『破僧事』 卷9 (『大正藏』 24, 145a·b).

18) 『增壹阿含經』 卷47, 「放牛品第四十九今分品-九」(『大正藏』 2, 804a-806a): “辱諸釋種。毀我等門戶。”

經』 권12-13과 『方廣大莊嚴經』 권4에는 봉다의 경쟁상대자로서 아난과 제바달다가 등장하고 있다.<sup>19)</sup>

물론 불전의 이와 같은 기록은 봉다와 아난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다면 사실일 타당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불전기록 당시의 승단인식에는 아난이 석가족이자 봉다의 종제로서 아쇼다라와는 무관하다는 측면이 보편적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이는 또한 현장이 『대당서역기』 권7에서 “아난은 봉다의 종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 관점이라고 하겠다.<sup>20)</sup> 즉, 아난을 봉다의 종제로 생각하는 것은 인도불교의 일반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이 북전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난이 봉다의 종제라는 보다 명확한 판단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전에서 아난과 제바달다를 야쇼다라의 동생으로 삼아 봉다와 처남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 관점에 입각한 내용이거나, 또는 오류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 2. 부친과 형제관계

아난의 부친과 형제관계는 아난의 나이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19) 『佛本行集經』 卷12-13, 「捨術爭婚品第十三上 ~ 捨術爭婚品下」(『大正藏』 3, 708b-712c); 『方廣大莊嚴經』 卷4, 「現藝品第十二」(『大正藏』 3, 562b-564c).

20) 『大唐西域記』 卷7, 「吠舍釐國」(『大正藏』 51, 909c): “阿難陀者如來之從父弟也”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아난의 석가족 내에서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아난의 나이를 비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계와 관련된 전적들은 붓다를 포함한 7대에 걸친 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五分律』권15를 통해서 고찰해 보면, 각각 ① 酔摩 → ②尼樓→ ③象頭羅→ ④瞿頭羅→ ⑤尼休羅→ ⑥淨飯→ ⑦菩薩이며,<sup>21)</sup>『불본행집경』권5에서는 ①甘蔗(善生王·日種王) → ②尼拘羅·別成→ ③拘盧→ ④瞿拘盧→ ⑤師子頰→ ⑥閱頭檀→ ⑦悉達로 나타나 있다.<sup>22)</sup>

이는 석가족의 가계를 7대 종성의 논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붓다의 조부인 사자협의 밑으로는 4남(혹은 4남과 여식)이 존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들 4남은 다시금 각기 2남(혹은 2남과 여식)을 두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남성 위주로 정리해 보게 되면, 조부인 사자협왕 밑으로 ‘4남 8자’의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4남 8자의 구조가 나타나 있는 전적은『五分律』권15,『破僧事』권2,『佛本行集經』권5와 권11,『佛說衆許摩訶帝經』권2,『佛說十二遊經』全1,『起世經』권10,『起世因本經』권10,『大智度論』권3,『彰所知論』권上,『釋迦譜』권1,『釋迦氏譜』全1,『佛祖統紀』권1,『釋氏稽古略』권1의 총13종이 있다.<sup>23)</sup>

---

21)『五分律』卷15,「第三分初受戒法上」(『大正藏』22, 101a·b).

22)『佛本行集經』卷5,「賢劫王種品下」(『大正藏』3, 674b-676a);『佛本行集經』卷11,「姨母養育品第十」(『大正藏』3, 701c).

23)『五分律』卷15,「第三分初受戒法上」(『大正藏』22, 101b);『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卷2(『大正藏』24, 105a);『佛本行集經』卷5,「賢劫王種品下」(『大正藏』3, 675c);『佛本行集經』卷11,「姨母養育品第十」(『大正藏』3, 701c);『佛說衆許摩訶帝

이러한 전적들과 율장의 자료 등을 기초로 廉仲燮은 「‘4男 8子’의順序에 관한 고찰」을 통해 4남 8자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sup>24)</sup>

이를 통해서 아난의 부친에 관해 살펴보면, 사자협왕의 4남인 淨飯, 白飯, 骁飯, 甘露飯 중 4남인 감로반을 비정된다. 이는 4남의 구조는 8자에 비해서 정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자 중에서 아난과 제바달다가 상대적으로 가장 어리기 때문이다. 즉, 4남 8자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13종의 전적들을 통해서 볼 때, 아난은 4남 중 넷째인 감로반의 소생일 개연성이 가장 높게 확보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난의 형제관계 역시 「‘4男 8子’의順序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아난과 형제관계에 있는 인물은 제바달다인데, 이들의 형제 순서에 있어서는 관련전적들에 따른 극심한 혼란양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제바달다가 파승기를 통해 불교 안에서 종교적인 단죄를 거친 부정적인 측면과 아난이 법장의 결집자로서 대가섭을 이어 교단의 수장적인 위치에 올라 이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대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바달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아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호 충돌하면서 아난

---

經』卷2(『大正藏』3, 937c); 『佛說十二遊經』全1卷(『大正藏』4, 146c); 『起世經』卷10, 「最勝品第十二之餘」(『大正藏』1, 364a·b); 『起世因本經』卷10, 「最勝品下」(『大正藏』1, 419b); 『大智度論』卷3, 「共摩訶比丘僧釋論第六」(『大正藏』25, 83b·c); 『彰所知論』卷上, 「情世界品第二」(『大正藏』32, 231b); 『釋迦譜』卷1, 「釋迦内外族姓名譜第七(出長阿含經)」(『大正藏』50, 10a); 『釋迦氏譜』全1卷(『大正藏』50, 86c-87a); 『佛祖統紀』卷1, 「教主釋迦牟尼佛本紀第一之一明本跡」(『大正藏』49, 139c-140a); 『釋氏稽古略』卷1, 「釋迦文佛宗派祖師授受圖略(本正宗記)」(『大正藏』49, 739a).

24) 廉仲燮, 「‘4男 8子’의順序에 관한 고찰」, 『佛敎學研究』18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183-215쪽.

의 형제관계와 관련된 기록들이 혼재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25)</sup>

그러나 율장을 위주로 하는 제바달다의 파승사 관련기록에 제바달다가 아난을 동생으로 칭하는 부분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sup>26)</sup> 불전 유의 전승에 상징적으로나마 제바달다가 아난에 비해서 수승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는 점<sup>27)</sup> 등을 통해서 아난의 형제관계는 제바달다가 형이고 아난이 동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는 아난이 8자 중에서 가장 어린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8자 중 첫째가 되는 붓다와 아난의 나이 차이는 8자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크게 된다고 하겠다. 즉, 4남의 첫째인 정반의 장남 붓다와 4남 중 넷째인 감로반의 차남인 아난은 8자 가운데 가

25) 「‘4男8子’의順序에관한고찰」,『佛教學研究』18호(2007), 193-201쪽.

26) 『十誦律』卷36,「雜誦第一(調達事上)」(『大正藏』23, 257b), “爾時調達作是念。阿難是我弟。佛第一經中說。諸多聞弟子中阿難最勝第一。我何不往詣其所問神通道”;『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卷14,「破僧違諫學處第十」(『大正藏』23, 700c), “是時具壽十力迦攝波。在王舍城鷲窟中住。時提婆達多便生此念。十力迦攝波性無詭詎所言真實。是我家弟阿難陀鄒波駢耶”;『鼻奈耶』卷2, (『大正藏』24, 859b), “復作是念。此阿難者是我小弟。世尊亦說。於聲聞中多聞第一。當往問神足道。必向我說神足道”;『鼻奈耶』卷7,「波逸提法之一」(『大正藏』24, 882b),“(調達婆兒阿難妹也)”;『破僧事』卷13, (『大正藏』24, 168b), “復念。如是何能教我聖道神通。當時十力迦攝波。在王舍城先尼迦窟中。我詣彼處。彼上座直心無詭。及我弟阿難陀。親教彼十力上座。能教我聖道神通”;『增壹阿含經』卷15,「高幢品第二十四之二」(『大正藏』2, 623c), “是時。提婆達兜釋種語阿難釋言。眞淨王今日有教。諸有兄弟二人。當分一人作道。汝今出家學道。我當在家修治家業。是時。阿難釋歡喜踊躍。報言。如兄來教”;『大智度論』卷14,「釋初品中羼提波羅蜜義第二十四」(『大正藏』25, 164c), “其後爲供養利故來至佛所。求學神通。佛告憍彌。汝觀五陰無常可以得道。亦得神通。而不爲說取通之法。出求舍利弗目犍連乃至五百阿羅漢。皆不爲說言。汝當觀五陰無常。可以得道可以得通。不得所求涕泣不樂。到阿難所求學神通。是時阿難未得他心智。敬其兄故如佛所言以授提婆達多”

27) 『佛本行集經』卷13,「捨術爭婚品下」(『大正藏』3, 710b-712c);『方廣大莊嚴經』卷4,「現藝品第十二」(『大正藏』3, 562b-564c);『佛說十二遊經』全1卷(『大正藏』4, 146c).

장 큰 나이 차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sup>28)</sup>

### III. 사실적인 관점

#### 1. 아난의 출가

아난의 출가는 붓다가 성도 후 카필라로 귀향한 시점에서 석가족의 귀족들의 출가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때 아난은 사미가 아닌 비구로 출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난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붓다의 성도 연령을 35세로 잡고 붓다의 귀향시점을 성도 후 6년으로 보게 되면,<sup>29)</sup> 이때 아난이 비구로 출

28) 「‘4男 8子’의 順序에 관한 고찰」의 212-213쪽에 정리된 4남 8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祖父	4男	8子 (縮約·音寫·意譯의인 차이 등)
師子頰 (尼休羅· 星賀賀努) 尸休羅)	淨飯	悉達多 難陀
	白飯	帝沙(提沙·婆沙·帝沙童·帝沙調達·婆婆·難提迦·婆帝疏嚕·恒星·釋迦王) 跋提(拔提·婆提迦迦·婆捺哩賀·難提迦·賢善·釋少王)
	斛飯	摩訶男(釋摩納·摩訶那摩·摩訶曩麼·摩訶曩摩·跋提梨迦·大名) 阿那律(阿尼盧豆·摩尼婁陀·阿爾樓駄·阿泥婁駄·阿尼婁駄·阿菴樓駄·無滅)
甘露飯		提婆達多(調達·天授)
		阿難(慶喜)

29) 붓다의 归鄉을 成道 후 약 6년으로 잡는 근거는 成道 때에 출생한 羅睺羅가 붓다의 归鄉時 6세(혹은 7세)였기 때문이다. 붓다의 归鄉 시기에 관해서는 成道 후 6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외에도 成道 후 12년(『新釋尊伝』, 東京: ちくま學藝文庫, 2005, 305쪽)과 12년이라는 설도 있다. 이와 같은 혼란상은 『佛本行集經』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하고 있다는 기록은 아난과 봉다의 나이 차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비구에 대한 기준은 율장의 보편론에 의거해 보면 20세이다.<sup>30)</sup> 그러므로 봉다 41세 때, 아난은 최소 20세가 되어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는 약 20년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우리는 봉다를 제외한 8자들의 결혼과 관련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된다. 석가족의 8자 중 발제와 아나울, 그리고 제바달다와 아난은 석가족의 귀족들이 출가할 때 함께 출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난타 역시 봉다의 귀향시에 봉다에 의해서 다소 강제적인 모습으로 출가하게 된다.<sup>31)</sup>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들 5명에 관한 적지 않은 자료들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중 난타를 제외하고는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

난타는 봉다의 귀향시점에 막 결혼을 끝냈거나, 혹은 결혼하려던 직전의 상황에 있었다.<sup>32)</sup> 이는 난타가 당시 결혼 적령기였다는 것을

---

『佛本行集經』卷55, 「羅睺羅因緣品第五十六上」(『大正藏』3, 906b), “其羅睺羅。如來出家六年已後。始出母胎。如來還其父家之日。其羅睺羅。年始六歲爾時如來。至迦毘羅婆蘇都城”; 『方廣大莊嚴經』卷12, 「轉法輪品之二」(『大正藏』3, 562a-564c), “耶輸陀羅攜羅睺羅年已七歲。來至佛所稽首佛足。瞻對問訊而白佛言。久違侍奉曠廢供養。諸眷屬皆有疑心。太子去國十有二載。何從懷孕生羅睺羅”; 『破僧事』卷12(『大正藏』24, 159a), “若佛世尊六年苦行。成覺之後更住六年。滿十二歲重還於此。我令諸人目驗虛實”; 『佛本行集經』卷55, 「羅睺羅因緣品第五十六上」(『大正藏』3, 910a), “然佛世尊。已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過十二年。然後方還迦毘羅城。欲於眷屬現憐愍故”

30) 『四分律』卷17, 「九十單提法之七」(『大正藏』22, 679c); 『十誦律』卷16, 「九十波逸提之八」(『大正藏』23, 116b).

31) 『佛本行集經』卷56~57, 「難陀出家因緣品第五十七上 ~ 難陀因緣品下」(『大正藏』3, 911b-918a); 『新釋尊伝』, 306-307쪽.

32) 에띠엔 라모뜨, 『印度佛教史』1, 浩眞 옮김(서울: 時空社, 2006), 60쪽; 『佛本行集經』卷56~57, 「難陀出家因緣品第五十七上 ~ 難陀因緣品下」(『大正藏』3, 911b-918a); 『根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발제와 아나율은 비슷한 연배의 매우 친밀했던 사이라고 석가족의 출가관련 기록들에는 한결같이 언급되어 있다.<sup>33)</sup> 특히 『衆許摩訶帝經』 권3에는 발제와 아나율이 동갑이라고까지 기록<sup>34)</sup>되어 있는데, 정확히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막역한 관계로 보아 비슷한 연배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특히 이 중 발제는 봇다의 귀향당시 석가족의 Rāja에 있었던 인물이다.<sup>35)</sup> 그런데 이들에게도 결혼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아난의 친형인 제바달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아난이 비구로 출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아난의 나이를 최소 20세로 비정하게 된다면, 이들은 모두 20세 이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

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卷11, 「第二門第十子攝頌之餘難陀因緣」(『大正藏』 24, 251a).

33) 『四分律』 卷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 22, 590b-c); 『五分律』 卷3, 「第一分之二第」(『大正藏』 22, 17a-b); 『毘哩浴』, Cullavagga, 7破僧犍度, 182-183쪽; 『破僧事』 卷9(『大正藏』 24, 144b-c).

34) 『佛說衆許摩訶帝經』 卷13 (『大正藏』 3, 974a), “時阿彌囉駄有一同年名曰賢王。最相知見”

35) 봇다가 淨飯王의 권유로 귀향하고, 淨飯王이 釋迦族 자녀의 출가를 勅命으로 반포했다는 전승들이 『佛說衆許摩訶帝經』 卷13 등에서 다수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釋迦族은 공화제국가로 首長은 王이라기보다는 Rāja이며, 이는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역임했는데, 봇다가 귀향했을 때의 Rāja는 정반왕이 아닌 跋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淨飯王이 개인적인 신분으로 귀국을 종용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王, 혹은 Rāja라는 공적인 신분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釋迦族의 출가도 자발적인 것으로 그 숫자는 다수이긴 하지만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봇다의 귀향 당시 跋提가 Rāja였다는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는 『五分律』 卷3이나 『毘哩浴』, 7破僧犍度, 181쪽과 같은 율장의 기록들이다. 그리고 釋迦族이 輸番制로 Rāja가 되었음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佛本行集經』 卷58, 「婆提喇迦等因緣品中」(『大正藏』 3, 921a-b) 등을 통해서 살펴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봉다의 결혼 연령이 16 ~ 19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sup>36)</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봉다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보았을 때, 남자라고 하더라도 20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타당하며, 그러한 연장선상에 봉다도 위치해 있다. 그런데 아난의 출가 나이를 최소 20세로 비정하게 되면, 석가족의 귀족들은 한결같이 20세 이후에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

물론 여러 사람 중 1명 정도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봉다의 귀향시점에 발제와 아나율, 그리고 제바달다는 모두 난타와 같이 결혼 정년기에 있었거나 아직 정년기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석가족 귀족의 출가와 관련된 기록들의 일부에서는 이들을 ‘童子’라고 칭하고 있기까지 하다.<sup>37)</sup> 동자는 한문적으로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는 범어 kumāra(巴利語同, 或 梵語 kumāraka)의 譯語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대한 표현에 다름

---

36) 봉다의 결혼 연령에 관해서는 17歲 說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17세 설을 제시하는 경전은 『修行本起經』 등이며, 19歲 說은 『佛本行集經』에서 나타나 보인다. 그러나 봉다에게는 『大智度論』 등에서 보이는 19歲 出家說도 있기 때문에 19歲 結婚說 보다는 17歲 結婚說이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6세와 18세 설에 대한 측면도 존재한다(宮坂宥勝, 『부처님의 생애』, 안양규 읊김, 서울: 佛教時代社, 1992, 59쪽). 『修行本起經』卷上, 「試藝品第三」(『大正藏』3, 465b); 『佛本行集經』卷12, 「捨術爭婚品第十三上」(『大正藏』3, 707a-c); 『大智度論』卷3, 「共摩訥比丘僧釋論第六」(『大正藏』25, 80c), “爾時世尊以偈答曰 我年一十九 出家學佛道 我出家已來 已過五十歲”; 『修行本起經』卷下, 「出家品第五」(『大正藏』3, 467c), “至年十九。四月七日。誓欲出家。至夜半後。明星出時。諸天側塞虛空。勸太子去”

37) 『破僧事』卷9 (『大正藏』24, 144c-146a); 『佛本行集經』卷58, 「婆提剎迦等因緣品中」(『大正藏』3, 922b-923a).

아니다.<sup>38)</sup> 그러므로 이러한 동자라는 표현은 이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과 내용적으로 일치될 수가 있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아난에게 형이 되는 발제와 아나율, 그리고 제바달다가 공히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출가 당시 연령이 최대 20세 정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3명이나 되고, 또 한 이들보다 동생이 되는 아난 같은 경우는 20세보다도 더 적게 볼 수가 있게 된다. 즉, 아난의 출가 연령은 대략 15~18세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율장의 비구에 대한 규정과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파생하게 된다. 라후라의 출가 역시 붓다의 귀향시점에서 붓다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라후라는 사미로 출가하고 있다.<sup>39)</sup>

그러므로 사미와 비구의 기준은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구의 나이를 20세로 규정하는 것은 이때 이미 성립해 있던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구의 최소 나이를 20세로 규정하는 것은 후일 목련련에 의해 비롯된 계율<sup>40)</sup>로 이 시기에

---

38) 鈴木學術財團編,『梵和大辭典』(東京: 講談社, 1979), 357쪽.

39) 일반적으로 羅睺羅는 불교교단 최초의 沙彌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치적으로는 『사분율』권34 등에 의거하여 羅睺羅가 최초의 沙彌가 되는 것이 옳으나, 『오분율』권17에는 羅睺羅 보다 빠른 周那라는 沙彌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四分律』卷34, 「受戒捷度之四」(『大正藏』22, 809c-810a); 『五分律』卷17, 「第三分初受戒法下」(『大正藏』22, 116c), “羅睺羅馱下趣佛。頭面禮足立佛影中。白言。是影甚樂願佛與我父餘財。佛語言。汝審欲得不。答言欲得。佛便將還所住告舍利弗。汝可度之。舍利弗白佛。世尊先制不得畜二沙彌。我已有周那不復得度。佛言。今聽如汝等能教誡者畜二沙彌”

40) 『四分律』卷17, 「九十單提法之七」(『大正藏』22, 679c); 『十誦律』卷16, 「九十波逸提之八」(『大正藏』23, 116b).

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41)</sup> 또한 봇다가 목건련이 20세 미만의 사람에게 具足戒를 준 것에 대해서 헐책하시는 대목을 보면,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출가생활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sup>42)</sup> 그러므로 구족계의 기준은 실질적인 나이보다도 成人의 판단에 관한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즉, 구족계의 성립은 출가생활을 감당할 정도의 성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적인 이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미가 출가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미가 아직 미성년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구는 成年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봇다가 16~19세에 결혼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15~18세 정도면 이미 성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비구라는 개념을 굳이 20세에 맞추지 않고 성인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봇다와 아난의 나이 차이를 우리는 약 24~27년 정도로 볼 수가 있게 된다. 平川彰은 『原始佛教とアビダルマ佛教』에서 봇다와 아난의 나

41) 구족계 수지의 나이를 20세로 정하는 것은 초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Theragāthā*(長老偈), <49·486>; 前田惠學, 「佛弟子における出家の動機とさとりの様態」, 『業思想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9), 239-240쪽.

42) 『十誦律』卷16, 「九十波逸提之八『大正藏』23, 116b), “佛在王舍城。爾時王舍城中。十七群年少富貴家子。柔軟樂人和提等。未滿二十歲。長老目捷連與受具戒。是人晡時飢急故。於僧坊內發大音聲。作小兒啼。佛聞僧坊內小兒啼聲。知而故問阿難。何故僧坊內有小兒啼聲。阿難答言。世尊。是王舍城中。有十七群年少富貴家子。柔軟樂人未滿二十歲。長老目捷連與受具戒。晡時飢急。是故僧坊內發大音聲作小兒啼。佛以是事集比丘僧。知而故問大目捷連。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種種因緣訶責目捷連。汝不知時不知量。趣得便與受具足戒。汝云何不滿二十歲人與受具戒。何以故。不滿二十歲人。不能堪忍寒熱飢渴。蚊虻風雨蛇毒所螫。他人惡口苦急奪命重病。皆不能堪忍。是不滿二十歲人未成就故”

이 차이를 20~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sup>43)</sup> 이 역시 필자의 논리에 의한 추론과 대체적인 일치가 확보되는 바라고 하겠다.

## 2. 大迦葉의 정법 부촉

아난의 출가와 관련된 측면들이 아난의 나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추론을 가능케 해 준다면, 이 외의 자료들은 그리 마땅한 것이 없다. 물론 봉다 55세에 봉다께서 시자를 선택함에 아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나,<sup>44)</sup> 봉다 72~73세 무렵 제바달다가 봉다께 교단승계 요구를 함에 있어서 봉다의 年老한 연세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sup>45)</sup> 등은 아난이 봉다와 큰 폭의 나이 차이를 가지는 인물이라는 간접적인 추론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난과 봉다의 나이차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획득해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阿育王傳』 권4<sup>46)</sup>와 『阿育王經』 권6<sup>47)</sup>에는 대가십의 雞足山(鷄脚山) 입장에 즈음하여 아난에게 정법을 부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43) 平川彰, 『原始佛教とアビダルマ佛教』(東京: 春秋社, 1991), 151쪽.

44) 『中阿含經』卷8, 「(三三) 未曾有法品侍者經第二(初一日誦)」(『大正藏』1, 471c-475a); 『佛般泥洹經』卷下(『大正藏』1, 169a); *Thera-gāthā*(長老偈), <1039~1043>; 『大智度論』卷2, 「初品總說如是我聞釋論第三(卷第二)」(『大正藏』25, 68a).

45) 『四分律』卷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22, 592b); 『毘哩陀』, Cullavagga, 7破僧犍度, 188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卷14, 「破僧違諫學處第十」(『大正藏』23, 701c); 『鼻奈耶』卷2(『大正藏』24, 860a).

46) 『阿育王傳』卷4, 「摩訶迦葉涅槃因緣」(『大正藏』50, 114b), “尊者迦葉以法付囑阿難而作是言。長老阿難佛以法藏付囑於我。我今欲入涅槃以法付汝。汝善守護。阿難合掌答尊者言唯然受教”

47) 『阿育王經』卷6, 「佛記優波笈多因緣第六」(『大正藏』50, 150a).

이에 대한 내용은 현장의 『대당서역기』 권9에도 기록되어 있는 데, 여기에는 대가섭의 입정이 1차 결집 후 20년 후라고 되어 있다.<sup>48)</sup> 주지하다시피, 1차 결집은 봇다의 열반 직후 하안거 때 3개월 간에 걸쳐서 왕사성 7겹굴에서 가섭의 주도로 행해진다. 그러므로 결집 20년 뒤에 대가섭이 입정한다는 것은 봇다의 열반 후 20년 뒤라는 의미와 통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때 아난이 대가섭에게 정법을 부축 받을 정도라면 이때까지도 아난은 교단 안에서 강건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아난의 열반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교교단의 고착화에 의한 환멸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난의 최후에 대해서는 『대당서역기』 권9의 기록이 가장 자세한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난은 대가섭에게 정법을 부축 받은 뒤 마가다국에 살다가 한 사미가 불경을 잘못 외우는 것을 보고 시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내 나이가 비록 많지만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정법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중생들의 허물이 두터워 가르치기 어려워 오래도록 머물러도 이로움이 없으니, 속히 멀도하는 것이 가하리라”<sup>49)</sup>라고 자조하면서 마가다와 바이살리의 중간지역인 Gaṅgā(갠지스) 강의

48) 『大唐西域記』 卷9, 「摩伽陀國下」(『大正藏』 51, 919c), “迦葉承旨住持正法。結集既已至第二十年。厭世無常將入寂滅”

49) 『大唐西域記』 卷7, 「吠舍釐國」(『大正藏』 51, 909c), “阿難默然退而歎曰。我年雖邁為諸眾生欲久住世。住持正法。然眾生垢重難以誨語。久留無利可速減度”

가운데에서 신통을 보인 뒤에 열반하게 된다.<sup>50)</sup>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난이 열반 시점에 많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봉다의 열반을 80으로 잡고, 아난과의 나이 차이를 약 24~27년으로 비정할 경우 봉다의 열반 당시 아난의 나이는 약 63~66세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가섭이 1차 결집 후 20년 뒤에 계족산에 입정하고 있으니, 대가섭의 입정 당시 아난의 나이는 약 83~86세에 이른다. 그런데 아난은 이후로도 교단의 수장적인 역할을 하다가 열반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아난이 대가섭 이후 얼마동안 교단의 수장적인 역할을하게 되는지에 관한 뚜렷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차 결집과 관련된 10사 비법의 판정에 있어서 서쪽과 동쪽의 장로가 각각 4인씩 선출되게 되는데, 이때 선출되는 장로 8인 중 6명이나 아난의 제자로 나타나고 있어<sup>51)</sup> 아난의 정법을 계승한 기간이 결코 적지 않음을 추론케 해준다.

---

50) 『大唐西域記』卷7, 「吠舍釐國」(『大正藏』51, 909c).

51) 『五分律』卷30, 「五分律第五分之十七百集法」(『大正藏』22, 193a); 히라카와 아키라, 『印度佛教의 歷史上』, 이호근 옮김(서울: 民族社, 1994), 109쪽, “아난은 기꺼이 서방을 교화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서방으로 진출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제2결집 때의 대표자였던 8명의 장로들 중 6명이 아난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제자 중에서 아난이 비교적 장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大唐西域記』卷7, 「吠舍釐國」(『大正藏』51, 909b), “佛涅槃後百一十年。吠舍釐城有諸苾芻。遠離佛法謬行戒律。時長老耶舍陀住惣薩羅國。長老三菩伽住秣免羅國。長老釐波多住韓若國。長老沙羅住吠舍釐國。長老富闍蘇彌羅住婆羅梨弗國。諸大羅漢心得自在。持三藏得三明。有大名稱衆所知識。皆是尊者阿難弟子”

2차 결집은 불멸 후 100(혹은 110)년 정도에 벌어졌다는 것이 불교사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때 장로 8인 중 6명이 아난의 제자라는 점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아난의 장수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첫째는 아난의 교단장악 부분이다. 아난에게는 法藏의 결집자라는 출중한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대가섭 이후 주어진 기간이 적었다면 교단의 대다수를 장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가섭 이후로도 아난에게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된다.

둘째는 6인의 장로들이 아난의 再傳제자가 아닌 직제자라는 점이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인의 장로들이 비록 나이가 많았다고 상정하더라도 아난이 특별나게 오래 살지 않고서는 이들은 아난의 직제자가 될 수 없다. 만일 6인의 장로들의 연령을 70~80세정도로 상정하고 이들이 10세 무렵에 출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차 결집의 시기가 불멸 후 100(혹은 11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이 아난의 직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난은 불멸 후 약 40년은 더 살아야 한다.

이러한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아난이 봉다의 열반 이후에도 물경 40~45년 정도를 더 산 초인적인 장수를 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난의 열반 나이는 약 106~111세 가량이나 된다.

『法句經註』에 의하면 아난은 120세에 열반하였다고 한다.<sup>52)</sup> 물론

---

52) 申星賢, 「初期佛教 教團에서迦葉과 阿難의 關係」, 『佛教學報』 제36호(1999), 256쪽.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4의 배수’들은 불교전적들 속에서 실질적인 숫자와 더불어 완전함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들은 쉽게 살펴 볼 수가 있는데, 봇다가 4월 8일에 탄생하여<sup>53)</sup>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sup>54)</sup> 4성제와 8정도의 가르침을 시설하였으며,<sup>55)</sup> 가장 중요한 핵심교리인 緣起法은 12연기이고,<sup>56)</sup> 1장 6쪽의 신장으로 16대국을 순유하다가<sup>57)</sup> 일평생 8만 4천 법문을 설하고는<sup>58)</sup> 80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20세 운운하는 것으로는 우루벨라 가섭의 나이<sup>59)</sup>와 봇다 최후의 제자인 Subhadda(須跋)와 같은 경우<sup>60)</sup>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53) 『佛說十二遊經』全1卷 (『大正藏』4, 146c).

54) 秦弘燮, 「32吉相, 80種好」, 『韓國의 佛像』(서울: 一志社, 1992), 70-79쪽; 張忠植, 『韓國의 佛像』(서울: 東國大學校 附設 譯經院, 1983), 96-107쪽.

55) 『中阿含經』卷7, 「(三〇)舍梨子相應品象跡喻經第十(初一日誦)」(『大正藏』1, 464b), “爾時。尊者舍梨子告諸比丘。諸賢。若有無量善法。彼一切法皆四聖諦所攝。來入四聖諦中。謂四聖諦於一切法最爲第一。所以者何。攝受一切衆善法故。諸賢。猶如諸畜之跡。象跡爲第一。所以者何。彼象跡者最廣大故。如是。諸賢。無量善法。彼一切法皆四聖諦所攝。來入四聖諦中。謂四聖諦於一切法最爲第一”

56) 崔鳳守, 『原始佛教의 緣起思想研究』(서울: 經書院, 1997), 22-43쪽.

57) 『大智度論』卷35, 「釋習相應品第三之一」(『大正藏』25, 320b), “(答曰。)算數譬喻所不能及者是其極語。(譬如人有重罪先以打縛楚毒然後乃殺) 如聲聞法中常以十六不及一爲喻。大乘法中則以乃至算數譬喻所不能及”; 『大智度論』卷35, 「釋習相應品第三之一」(『大正藏』25, 319c), “(答曰。)略說則十六。廣說則無量”

58) *Thera-gāthā*, <1024>.

59) 『方廣大莊嚴經』卷12, 「轉法輪品之二」(『大正藏』3, 612b); 『中本起經』卷上, 「化迦葉品第三」(『大正藏』4, 149c).

60) 『長阿含經』卷4, 「遊行經第二後」(『大正藏』1, 25a); 『般泥洹經』卷下 (『大正藏』1, 187b); 『佛般泥洹經』卷下 (『大正藏』1, 1714c); 『大般涅槃經』卷下 (『大正藏』1, 203b).

것이 실질적인 나이를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많은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봇다 보다 시기가 훨씬 늦은 唐代의 詩聖 杜甫가 「曲江詩」에 “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할 정도인데,<sup>61)</sup> 오늘날도 찾아보기 힘든 120세나 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교화한다는 것은 다분히 상징적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아난이 120세에 열반했다는 것 역시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징성이 부여될 정도로 아난이 특별히 더 장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IV. 종교적인 관점

### 1. 아난의 탄생기록

인간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행론을 중시하는 불교는 봇다에 대한 종교적 측면이 초기에는 약했다. 그로 인하여 불전은 이른 시기에 형성되지 못했고, 이는 봇다의 생애가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종교적인 관점의 방식에서 기술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파생하게 한다.

불전은 봇다의 생애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봇다의 생애 자체가 석가족이나 제자들과 관련된 측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전들에는 아난에 관한 내용들도 다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

---

61) 金達鎭 옮김, 『唐詩全書』(서울: 民音社, 1989), 449쪽.

전 중에서 『파승사』 권13<sup>62)</sup>이나 『중허마하제경』 권6<sup>63)</sup>과 같은 경우는 아난이 봉다의 성도시에 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봉다와 아난의 나이 차이는 35세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허마하제경』 권6에는 아난의 출생일에 라후라도 탄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아난과 라후라가 동갑이라는 것이다.

라후라에게는 이해의 관점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파생될 수 있는 ‘6년 입태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봉다의 성도시에 라후라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6년 입태설은 논리적 납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라후라에게는 봉다 출가 직전에 탄생했다는 설도 파생하고 있다. 즉, 라후라에게는 봉다의 출가 직전과 성도시에 탄생했다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sup>64)</sup>

62) 『破僧事』 卷13 (『大正藏』 24, 105a), “爾時世尊在菩提樹下。降伏三十六俱胝魔軍。證得無上正遍知覺。時魔即往劫比羅城於虛空中。告淨飯王及諸宮人群臣百姓曰。沙門喬答摩今夜已死。時淨飯王聞之。心懷懊惱悶絕擗地。及諸宮人群臣百姓亦皆如是悲泣懊惱。時淨居天觀察下方。乃見斯事即下空中。告迦比羅城國王人衆曰。喬答摩不死。今在菩提樹下。證得無上正遍知道。時淨飯王及宮人國臣。忽聞此言踊躍歡喜。當此之時。甘露飯王誕生一子。以諸衆人歡喜日生故。因號此兒。名曰阿難陀”

63) 『佛說衆許摩訶帝經』 卷6 (『大正藏』 3, 950c), “爾時魔衆即皆退散。復告淨飯王曰。悉達多太子。於金剛座上而得無常。王既聞已與諸眷屬悲啼懊惱迷悶倒地。時有天人告淨飯王。太子已成無上菩提。王聞是語心大歡喜。及奏王云。甘露飯王生其一子。耶輸陀羅亦生一子。王諸眷屬皆大踊躍”

64) 羅睺羅의 탄생시점에 관해서는 여러 전작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봉다의 成道 무렵이라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납득하기 대단히 난해한 ‘6年 入胎說’을 수용해야만 하는 애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후대에는 봉다의 出家 이전에 羅睺羅가 탄생했다는 설이 제기되기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혼란을 반영하듯 『佛本行集經』 안에는 羅睺羅의 탄생에 대한 봉다의 出家 이전 (『佛本行集經』 卷55, 「羅睺羅因緣品第五十六上」, 『大正藏』 3, 909a-909c) 과 成道時 (『佛本行集經』 卷51, 「尸棄本生品下」, 『大正藏』 3, 888b) 의 두 가지가 아울러 등장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아난과 같은 경우 일부 불전은 봉다의 성도시에 탄생했다는 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될 경우 아난은 라후라에 비해서 동갑이거나 6살이 어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석가족 귀족들의 출가시에 라후라는 사미로 출가하는 반면, 아난은 비구로 출가한다는 율장의 관련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가 있다.

아난이 봉다의 성도시에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봉다와 아난을 보다 밀접하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의도된 왜곡으로 사료된다. 이는 아난 교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자 봉다의 열반 이후 아난의 영향력에 대한 추존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잡아함경』 권8 등에서는 아소카왕의 불적순례 때에 아난이 아소카왕으로부터 가장 많은 보시를 받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sup>65)</sup> 이 역시 동일한 의미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또한 아난은 석가족의 귀족들과 함께 출가하지만, 봉다의 칙제자가 아닌 5비구<sup>66)</sup> 중 한 명인 十力迦葉의 제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적들이 다수가 있다.<sup>67)</sup>

65) 『雜阿含經』卷18, 「弟子所說誦第四品-六〇四」(『大正藏』2, 168b), “王卽捨百億兩珍寶。而供養其塔”; 『阿育王經』卷2, 「見優波笈多因緣品第二」(『大正藏』50, 138c), “時阿育王以十萬金供養阿難塔”

66) 5比丘에 대해서는 석가족의 자제를 정반왕이 취하여 보낸 것이라는 설(『修行本起經』卷下, 「出家品第五」, 『大正藏』3, 468a; 『中本起經』卷上, 「轉法輪品第一」, 『大正藏』4, 147c; 『佛說太子瑞應本起經』卷上, 『大正藏』3, 476a; 『佛說普曜經』卷4, 「告車匿被馬品第十三」, 『大正藏』3, 509b; 『方廣大莊嚴經』卷5, 「出家品第十五」, 『大正藏』3, 578b; 『異出菩薩本起經』卷1, 『大正藏』3, 619c; 『過去現在因果經』卷3, 『大正藏』3, 637a)과 봉다가 優陀羅羅摩子(Udraka-rāma-putra)의 문하에서 수행할 때 뜻을 같아해서 봉다를 따르게 된 인물들(『新釋尊伝』, 144쪽)이라는 두 가지의 설이 있다.

67) 『十誦律』卷60, 「五百比丘結集三藏法品第一」(『大正藏』23, 446a), “長老十力迦葉阿

이는 승단이 분열되는 양상에 있어서는 반대파에 의해서 아난의 정통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난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한 의도적인 왜곡이 존재할 개연성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난의 특별한 장수 역시 이러한 왜곡의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즉, 아난세력에 의한 아난의 정통성 확보와 아난의 특별한 장수가 아난을 봇다 성도시에 출생했다는 의도된 왜곡의 결과를 파생시켰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파승사』권13과 같은 경우에는 아난이 봇다의 동생이 되고 大總持를 획득하게 되는 본생담이 설해져 있는데,<sup>68)</sup> 이와 같은 경우도 아난과 봇다를 보다 밀접하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의 한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아난이 봇다의 성도시에 출생했다는 기록은 아난의 정통성을 변증하려는 승단인식에 의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사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겠다. 즉, 이는 종교적인 상징성의 의미에서만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지, 실재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다.

## 2. 捐術爭婚과 아난

---

難和上第三上座”;『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卷14,「破僧違諫學處第十」(『大正藏』23, 700c), “時提婆達多便生此念。十力迦攝波性無諱誑所言真實。是我家弟阿難陀鄒波駄耶”;『破僧事』卷13 (『大正藏』24, 165b), “佛告十力迦葉。汝應與此大歡喜童子如法度之。十力迦葉既奉佛命。即便度之爲受具戒”

68)『破僧事』卷13 (『大正藏』24, 167c), “時辟支弟。今阿難陀是。緣過去世供養辟支迦。當發願言。未來世中與佛作弟。親承供養多聞總持。所以今時爲我毘季聰明第一。若水注瓶時”

불전의 기록들이 봉다의 생애를 언급함에 있어서 사실에 바탕을 두는 종교적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은 각술쟁혼의 구조 속에 아난이 포함되는 것을 통해서도 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각술쟁혼 구조는 봉다의 결혼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석가족들과의 기예경쟁 결과로 생취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각술쟁혼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불전들 중에는 기예경쟁의 상대로 아난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이를 우리는 『불본행집경』 권12~13과 『방광대장엄경』 권4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sup>69)</sup> 즉, 같은 불전 유의 서술이라도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아난의 나이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고찰한 것과 같이 아난이 봉다 성도 시에 탄생했다면, 봉다의 결혼연령인 16~19세는 고사하고 봉다는 성도 후 카필라로의 귀향 때 처음으로 아난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각술쟁혼 구조에 아난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난은 봉다와 불과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16~19세 나이 정도의 봉다와 경쟁하기 위해서 상대자는 최소 14세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봉다와 아난은 거의 대등한 나이가 된다. 이럴 경우 아난이 봉다의 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일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각술쟁혼의 구조 속에 아난이 등장하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고 할 수 있다.

---

69) 『佛本行集經』 卷12~13, 「捨衛爭婚品第十三上 ~ 捨衛爭婚品下」(『大正藏』3, 708b-712c); 『方廣大莊嚴經』 卷4, 「現藝品第十二」(『大正藏』3, 562b-564c).

그렇다면 불전의 기록자들은 이 점에 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 각술쟁혼의 구조가 등장하는 전적에는 『불본행집경』과 『방광대장엄경』 이외에도 『佛說普曜經』 권3과 『修行本起經』 권上이 더 있다.<sup>70)</sup> 그런데 이러한 전적에는 아난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전의 기록자들에게도 아난의 나이를 고려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음에 대한 한 반증이 된다. 그러므로 아난을 등장시키고 있는 각술쟁혼의 구조 역시 의도적인 왜곡으로 밖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난을 각술쟁혼의 구조 속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난이 봇다와 경쟁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佛說十二遊經』 全1에는 “봇다는 4월 8일생이며 …… 아난은 4월 10일생이다”라는 탄생과 관련된 기록이 있고,<sup>71)</sup> 또한 “봇다의 신장은 1장 6척이며 …… 아난의 신장은 1장 5척 3촌이었다”<sup>72)</sup>고 하여 신장과 관련된 기록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아난을 봇다와 대비하여 아난의 탁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각술쟁혼의 구조 속에 아난을 편입시키고 있는 것 역시 아난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종교적 상징성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는 사실적으로는 허구인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상징적인 타당성을 확

70) 『佛說普曜經』 卷3, 「王爲太子求妃品第九 ~ 試藝品第十」(『大正藏』 3, 500c-502a); 『修行本起經』 卷上, 「試藝品第三」(『大正藏』 3, 465b-466a).

71) 『佛說十二遊經』 全1卷(『大正藏』 4, 146c), “佛以四月八日生。…… 阿難以四月十日生”

72) 같은 책, 146c, “佛身長丈六尺。…… 阿難身長丈五三寸”

보할 수가 있는 측면인 것이다.

## V. 結論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아난이 봉다에 비해서 약 24~27년 정도 어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나이 차이에 대한 고찰은 봉다와 아난의 관계에 대한 보다 타당한 접근을 가능케 해준다.

또한 아난의 나이가 명확해지게 되면, 봉다의 從弟들에 대한 위치와 봉다 만년의 제바달다의 파승가에 관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봉다의 제자들 특히 대가섭과 아난의 관계 등에 대한 보다 타당성 있는 접근이 가능해지며, 이와 아울러 1차 결집과 2차 결집의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보다 용이함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 즉, 아난의 나이는 근본불교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아난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 양상이 불전관련 전적들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후대에 아난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세력 간에 모종의 알력관계가 존재했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인식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사리불이 봉다 재세 시 최고의 제자였다면 아난은 봉다의 열반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교단사의 첫 장에 대한 투명도를 한층 진일보시키게 된다.

## 주제어

아난(Ānanda), 봉다(Buddha), 나이(age), 釋迦族(Buddha's family),

出家(pabbajja), 탄생(birth)

# A Consideration on the Age of Ānanda

Youm, Jung-seop((Ven. Jeng-am)  
Dongguk Univ.

Ānanda was one of the closest relative of Buddha and at the same time was the servant who attended him for 25 years. In addition, he was so clever that he could memorize all the 84,000 sutras and thus took an essential role in the first saṃgīti. Later, he followed Mahākāśyapa to become the head of Buddhism. It means that Ānanda could become the most influential disciple in the fundamental Buddhism, even more than Śāriputra, the best disciple who entered into Nirvana earlier than Buddha. That is to say, the range of Ānanda was much wider than that of Śāriputra in the fundamental Buddhism.

Therefore, the exact understanding on Ānanda will give us more precise viewpoint on the fundamental Buddhism. In this

paper, an approach to the age of Ānanda was made. When the age of Ānanda is acquired more clearly, we can deduce the more correct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a and Ānanda and the various aspects related with Buddhist history in the fundamental Buddhist era.

Moreover, when the age of Ānanda is acquired exactly, we can find out Buddha's position among his younger cousins and the situation of Devadatta's sam̄ha-bheda in old age of Buddha more clearly. It also enables the more reasonable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among Buddha's disciples, especially that between Mahā-Kāśyapa and Ānanda, and to the period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samgīti as well.

But, the age of Ānanda has so many confused elements in itself that it is not easy to approach it. For Ānanda, it is recorded in the Vinaya Pitaka that he made the pabbajja when Buddha returned to Kapila-vastu after his acquisition of Great Wisdom. But it is also recorded in a Buddhist document that he was born on the day of Buddha's acquisition of Great Wisdom. Thus, the difference of age between two records is not small.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is kind of problem is sublated and the synthetic result for Ānanda's age is sought.